

2026년

7월~9월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예수님과 동행함

정로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함

목 차

1.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5
2.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10
3. 회개.....	15
4. 자복.....	20
5. 헌신.....	26
6. 믿음과 받으심.....	31
7. 제자되는 증거.....	36
8.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41
9. 사업과 생애.....	47
10. 하나님을 아는 지식.....	52
11. 기도의 특권.....	57
12. 의심을 극복하는 길.....	62
13. 주님 안에서 기뻐함.....	67

안식일 성경 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 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의성사

전 화: 054) 435-1843

팩 스: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서문

이번 분기 학습 과목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은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각 장을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서로 읽을 수 있다.

일부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 1980년 1분기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새로운 구성과 추가 자료를 통해 다시 이 주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 오래전부터 전해왔던 깊은 진리는 그대로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차갑고 멀리 계시며, 가혹하고 엄격한 심판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그분의 깊은 사랑과 모든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간과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죄인이 무력하고 소망이 없으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어져야 한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확실한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교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중요한 경험들을 다루며, 특히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새신자들에게 적합하다. 모든 신자들은 이 주제들을 때때로 복습해야 한다. 이는 자신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교리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한, 그는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얻지 못한다. 참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3:36).

모든 안식일학교 반생들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성령의 증거를 자신의 영으로 깨달아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모범, 즉 모든 때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이 진실하고 실제적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나약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곧 이기심 없는 사랑이 마음과 영혼에 심겨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다.

모든 안식일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첫째 안식일 연금

2026년 7월 4일 안식일



인도 첸나이 교회 확장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첸나이는 과거 마드라스로 알려졌던 곳으로, 인도 최남단 주 타밀나두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벵골만의 कोरो만델 해안에 위치해 있다. 2011년 인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첸나이는 인도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인구 밀집 지역으로는 네 번째로 큰 광역권이다. 1688년에 설립된 그레이터 첸나이 시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 자치 단체이며,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방 자치 단체이다. 약 15,000개의 산업체가 있는 무역 및 상업의 중심지이며, “인도의 의료 수도”로 불릴 만큼 의료 관광의 주요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의 자동차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의 디트로이트”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첸나이는 201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10대 음식 도시”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남아시아 도시이며,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 9위에도 선정되었다.

첸나이 광역권의 인구는 현재 1,200만 명이 넘었으며, 매년 2.34%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도시는 다양한 민족 및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는 곳이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첸나이 인구의 대다수는 힌두교도(80.73%)이며, 그 뒤를 이어 이슬람교(9.45%), 기독교(7.72%), 기타(1.27%), 무종교 또는 종교적 선호도 없음(0.8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첸나이의 178만 8천 가구 중 4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첸나이에는 22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40%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는 약 1,131개의 빈민가가 있으며, 30만 가구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첸나이에 교회 건축을 예정대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목회자 숙소, 회의실, 어린이 안식일학교 교실 등을 추가로 건축하여 계획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랑하는 교회들의 따뜻한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형제자매와 청년들께 이 사업을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첸나이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요일 3:1)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1장, 9~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온다.” -산상보훈, 77.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6월 28일(첫째 날)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출 34:6, 7; 욘 4:2[하단]; 렘 31:3.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반포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출 33:19)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다.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 나’(출 34:6, 7) 하셨다. 그분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욘 4:2), 이는 그분께서 ‘인애를 기뻐하심’(미 7:18)이다.” -정로의 계단, 10.

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였는가? 마 11:27 요 14:8, 9.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요 속성이 엄격한 정의를 행하시는 분 - 가혹한 심판자이자 냉혹하고 까다로운 채권자로 생각하게 했다. 그는 창조주를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찾아내어 벌주시기 위해 질투심 많은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바로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정로의 계단, 11.

가.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지상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눅 4:16~18.

“[누가복음 4:18 인용] 이것이 그(예수님)의 사업이었다.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병자의 신음 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나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었다. 그분의 사업은 그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심을 증거하였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분의 삶의 모든 행적에서 드러났다. 그분의 마음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도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분에게 이끌렸다. 저들은 그분의 무릎에 올라앉아 인자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 -정로의 계단, 11, 12.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영혼 속에서 그분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로 가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분께서는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일상적인 일터에서 그들을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셨다. 그분께서 교훈을 가정에 전하셨고, 가족들을 그들의 집에서 그분의 신성한 임재의 감화를 받게 하셨다. 그분의 깊은 동정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분께서는 종종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으나 이는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그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해 나오셨다.” -시대의 소망, 151.

나. 사랑과 동정심이 가득하셨지만 잘못을 꾸짖으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예는 무엇인가? 요 9:39~41; 마 21:12, 13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의 한 말씀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는 최대한 사려 깊고 친절하게 대하셨다.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불필요하게 가혹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며, 예민한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진리를 말씀하셨으나 언제나 사랑으로 하셨다. 그분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불의를 꾸짖으셨으나 그렇게 날카로운 질책을 하실 때에도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 모든 영혼은 그분의 눈에 소중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신성한 위엄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가족인 각 사람에게 가장 부드러운 배려로 몸을 굽히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해야 할 타락한 영혼들을 보셨다.” -정로의 계단, 12.

가. 우리 구주께서는 생애 동안 어떤 무거운 짐을 지셨는가? 사 53:5~7; 눅 2:48, 49.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이것이 그분의 영혼의 무거운 짐이었으며, 누구도 그분에게 지워진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그리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는 홀로 걸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은 천국과 같았다. 날마다 주님께서서는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셨고, 날마다 악과 마주하시며,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의 힘을 목격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실패하시거나 낙심하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엄격히 보류하시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랍비들의 학교에서 그분을 발견한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눅 2:48, 49)라고 대답하셨다. 이 대답은 그분의 평생 사업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기희생의 생애였다. 이 세상에 거처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나그네로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마련하였을 뿐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시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 생애하시며 일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셨지만,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들 사이를 오가셨다.” -복음 교역자, 42, 43.

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요 3:16; 요일 4:9, 10

“이 큰 희생은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작정하게 하시거나, 아버지로 하여금 기꺼이 구원하시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요 3:16)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를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러한 속죄를 베푸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부어주실 수 있는 매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겐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 정로의 계단, 13.

가. 우리 영혼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고전 1:30; 행 16:31.

“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은 그분의 신성, 곧 인간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그분을 개인의 구속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범법자의 죄책을 거룩하신 대속자에게로 옮기셨다. 비유적으로 ‘진홍같이붉은 죄 많은 세상의 죄가 거룩하신 보증인에게 전가되었다.’ - 오늘 하나님과 함께, 236.

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는가? 요 10:17; 롬 5:6~8.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너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어 내 생명을 드려 너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짐으로써 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 있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 이는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분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이를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무한하신 희생 외에는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 정로의 계단, 14.

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에 대해 무엇을 증언할 수 있었는가? 요일 1:1~3.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초래된 파멸의 크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죄인을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희생과 비할 데 없는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큰 대적과 싸울 힘을 가지셨으며,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인으로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통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 그리스도인 교육, 112.

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의 대가를 치르실 자격을 갖추신 이유는 무엇인가? 벵전 1:18, 19; 히 5:8, 9.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곧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신 무한하신 희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귀한 관념을 갖게 한다. 영감받은 사도 요한은 멸망해 가는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고 경외와 찬탄으로 충만하여 이 사랑의 위대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고 부르짖었다. ... 이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가!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인류를 높였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정로의 계단, 15.

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요일 3:1, 2.

“이러한 사랑은 비할 데가 없다. 하늘 왕의 자녀들이여! 귀한 약속이여! 가장 깊이 묵상할 주제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이여!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그분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정의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며,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부드러운 연민보다 더 뛰어난 무수한 증거들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된다.” -정로의 계단, 1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8

7월 3일(여섯째 날)

1. 하나님의 품성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을 설명하라.
2.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는가?
3.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5.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궁극적인 선물을 설명하라.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기억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2장, 17~22.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시대의 소망, 147.

1. 인간의 본래 상태

7월 5일(첫째 날)

가.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본래 상태를 설명하라. 창 1:26, 27, 31; 시 8:4~6.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균형 잡힌 마음을 부여받았다. 그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다.” -정로의 계단, 17.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히 1:3)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정욕은 이성(理性)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45.

나. 사단은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했는가? 창 3:1~7; 롬 6:16; 요일 2:16.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왜곡되고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의 본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져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권세를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고,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땅을 비애와 황폐로 채우는 것이 유혹자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임을 지적하려 했다.” -정로의 계단, 17.

2. 하나님의 낫을 피해 도망함

7월 6일(둘째 날)

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 3:8~10.

나. 죄 많은 인간은 왜 무한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는가? 출 33:20. 신 4:23, 24.

“사람이 죄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져’(골 2:3)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이 교제하였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는 더 이상 거룩함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려 했다.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없으며, 거룩한 존재들과의 교제를 피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천국은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는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이 충만하며, 모든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은 그 정신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생각, 관심사, 동기는 천국에 거하는 죄 없는 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는 천국의 선율 속에서 불협화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천국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신 그분으로부터 피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천국에서 제외하시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들은 천국의 교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과 같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17, 18.

다. 인간이 죄의 형벌을 스스로 피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욥 14:4; 롬 8:7, 8; 사 64:6.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 교육과 문화와 의지력의 행사와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고, 생명의 근원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내면에서 역사하는 능력,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생명 없는 영혼의 능력을 소생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즉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정로의 계단, 18.

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시 14:1~3; 롬 3:9~11.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선을 행하는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2)라고 선언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마음의 상태에 대해 속고 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심히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자기의 의로 자신을 두르고 있으며 자기가 세운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를 맞이하는지,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20.

나.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영적인 영역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고전 2:14; 고후 4:4.

“구주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3:3),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소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요 3:3)다고 말씀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내재하고 있는 선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생각은 치명적(致命的)인 착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7).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였다.” -정로의 계단, 18, 19.

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를 구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 11:28~30;
요 3: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고후 5:19)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타락하여, 그 본성이 순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신 후,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자녀’(요일 3:2)가 될 수 있게 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64.

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가? 롬 7:12, 14, 24.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품성의 자비하심과 아버지 같은 부드러움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와 공의를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롬 7:16).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령의 괴로움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14)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를 갈망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하였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울부짖는 부르짖음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 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9)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19.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영적 삶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 … 구주께서는 그분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네가 낮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시대의 소망, 203.

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가? 창 28:10~13.

“그[야곱]는 자신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느꼈고,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고, 그는 감히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그는 깊은 슬픔과 겸비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의 무거운 마음은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자비는 잘못을 저지르고 의심 많은 그분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계시해 주셨다. 그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계시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183.

5. 하늘과 땅의 연결

7월 9일(다섯째 날)

가. 야곱이 광야에서 본 사다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 28:16, 17; 요 1:51.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제시되었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에게 필요 되는 부분만큼만 제시되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신비로운 사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바로 그 사다리였다. [요 1:51 인용]. …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유로운 교제가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인간은 창조주와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고립된 절망 속에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통을 위한 매개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부조와 선지자, 184.

나. 그리스도의 증보로 확립된 연결고리를 설명하라. 롬 3:23~26; 히 1:14.

“배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그 사이에 놓인 심연 너머로는 어떤 교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심연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섬기는 천사들이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무력한 타락한 인류를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시키셨다.” -정로의 계단, 20.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써 세상의 그분의 자녀들을 간절히 사모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부어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죽음과 증보,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탄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늘 거민들의 끊임없는 관심,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動員)되었다.” -정로의 계단, 20. 2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6

7월 10일(여섯째 날)

1. 타락 이전과 이후 인류의 상태를 비교하라.
2. 타락 이후 인간은 무엇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4. 야곱이 꿈에서 본 놀라운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라.
5.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류와 소통하시는가?

회개

기억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3장, 23~35.

“하나님께서서는 죄에 빠졌으나 참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02, 203.

1. 죄를 슬퍼함

7월 12일(첫째 날)

가. 침례 요한이 요구한 참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눅 3:7~14.

“회개에는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죄에서 돌이키기 전까지는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23.

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고후 7:9, 10.

“죄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업신여기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밑까지 인도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상처를 입으셨다. 우리 때문에 찢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 고통을 안겨드린 죄들을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300.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순복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깊이와 신성함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24.

가.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어떤 간구를 드렸는가? 시 51:1~4.

“다윗이 범죄한 후에 드린 기도는 죄에 대한 참된 슬픔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진실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에서 영감을 주지 않았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진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죄를 혐오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거룩함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조화와 교제로 회복되기를 갈망하였다.” -정로의 계단, 24, 25.

나. 다윗의 진정한 회개는 그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게 했는가? 시 51:10~13.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가장 기초에서 시작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노력의 결과로 훨씬 더 큰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의 사역이 중요하고 책임감이 클수록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 필요한 은혜는 이미 주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은 그대가 이 방향으로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열렬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찾는다면, 은혜 안에서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불화는 그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이며, 교회 안에는 순결과 사랑이 넘칠 것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영접하시고, 그대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 주실 것이다.” -복음 교역자, 451, 452.

다. 성경은 회개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롬 2:4; 행 3:19; 5:31.

“그리스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올바른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으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우리 죄에 대한 모든 확신은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정로의 계단, 26.

가. 에서, 바로, 유다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깨달았을 때 어떤 회개를 했는가? 히 12:16, 17; 출 12:30~32; 14:3~5; 마 27:3~5.

“회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고, 자기 잘못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하여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자체보다도 고통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슬퍼한 것과 같다. ...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한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마 27:4)라고 부르짖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이다. 그에게 임할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에 떨게 했지만, 그러나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은 없었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에 더 이상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했을 뿐,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 -정로의 계단, 23, 24.

“하나님께서서는 바로에게 신성한 권능의 가장 놀라운 증거를 주셨으나, 그 왕은 완고하게도 그 빛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가 거부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게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첫 번째 기적을 거부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부조와 선지자, 268.

나.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나중에 미루면 어떻게 되는가? 요 12:35, 36; 히 3:12~15.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아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나, 그 때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 펴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에서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그들은 죄의 결과는 슬퍼하지만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도, 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만, 옛날 바로와 같이 형벌이 제거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0, 621.

가.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눅 18:10~13.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거만한 기도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1, 13)라는 회개하는 세리의 간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다.” -시대의 소망, 495.

나.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의 기도의 결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눅 18:14.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라고 기도한 가련한 세리는 자신을 심히 큰 죄인으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필요를 느꼈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를 구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우신 역사를 행하시고 그를 죄의 권세에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 바리새교인의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기도는 그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과 비교하여 자신의 더러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정로의 계단, 30, 31.

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바로잡고자 하셨는가? 눅 18:9; 고후 10:12; 잠 16:18.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외적인 삶에 관련된 종교에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위의 열매이며,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 된다.

무릇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이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한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조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실물교훈, 151.

5.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7월 16일(다섯째 날)

가. 죄책감을 무시하거나 반응을 미루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고후 6:2; 히 3:7, 8; 눅12:20, 21.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계속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저들은 은혜의 성령을 거스르고 사단의 편으로 감화를 끼친 이후에라도 어떤 최후적 위기의 순간에 저희가 자신의 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의 경험과 교육이 사람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로의 계단, 33, 34.

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 139:23, 24; 51:10.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말씀을 그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귀 기울이라.” -정로의 계단, 35.

“과연 우리는 큰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충분하다. 그분께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희생을 찬양하기 위해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죄의 심각성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주신 줄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하신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내린다.” - 정로의 계단, 3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3

7월 17일(여섯째 날)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가?
2. 우리는 왜 스스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는가?
3. 에서, 바로, 유다의 회개에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4.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5.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

자복

기억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4장, 37~41.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 도달한다” -정로의 계단, 38.

1. 하나님의 자비

7월 19일(첫째 날)

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 28:13; 약 5:16.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거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길고 힘든 순례 여행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苦行)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37.

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가? 잠 15:33; 19:23; 시 34:18.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낮추지 않은 자들은 아직 받아들여지기 위한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죄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결코 얻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건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의 자복은 공중 앞에서나 사사로이 하거나 간에 진심에서 우리나라와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38.

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것인가?
시 51:4.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고 하였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그대를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무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로의 계단, 37.

나.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마 6:14, 15; 엡 4:32.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동정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주었더라도, 우리는 원망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산상보훈, 113, 114.

다.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을 통해 배워야 하는가? 벧전 4:8; 롬 13:8.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고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드러내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곧 그분으로부터 자비를 받아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산상보훈, 114, 115.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우리의 가장 큰 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크신 사랑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사단은 그와 같은 영혼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으며, 거칠고 무정한 말은 그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을 유혹자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한다.” -치료봉사, 163.

3. 구체적이고 진실한 자복

7월 21일(셋째 날)

가. 어떤 죄는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고, 어떤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하는가? 시 32:5; 마 5:23, 24.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구체적이어야 하며, 지은 죄를 인정해야 한다. 어떤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고, 어떤 죄는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자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복은 명확하고 핵심적이어야 하며, 그대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인정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38.

“사사로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자복하여야 한다. ...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자복해야 한다. 모든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자복해야 한다.” -복음교역자, 216.

나. 참된 자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삼상 12:19.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었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변호하고 옹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주의 위대하신 통치자를 배반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통치받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평안을 찾기 전에 이렇게 솔직한 자복을 하였다.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삼상 12:19) 하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죄를 자복해야 했다.” -정로의 계단, 38, 39.

다. 자복 후에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가? 사 1:16, 17; 겔 33:15.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가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39.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특징지었던 불의한 행실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나타낼 것이다. 세리장과 같이 그는 배상을 함으로써 그의 진실함을 증거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6.

가.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 물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암시했는가? 창 3:12, 13.

“아담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려 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조와 선지자, 57.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죄를 변명하고 두려운 죽음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그 죄를 일부는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일부는 그 아내에게 돌려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고 하였다.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3)고 하였다. 왜 주님께서 뱀을 만드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동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녀의 죄에 대한 변명에 암시되어 있으며,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정로의 계단, 40.

나. 자기 합리화는 왜 자복을 무효화하는가? 욥 9:20; 눅 16:15.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났 다. 이러한 종류의 자복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고 속임이나 위선 없이 그것을 인정하게 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40.

“우리는 죄를 변명함으로써 죄책감을 감소시키고자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실로 무겁다. 오직 갈바리만이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비록 그렇게 하실 책임이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 7:18).” -산상보훈, 116.

가. 바울은 어떻게 겸손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가? 행 26:10, 11.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실례는 죄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보여준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행 26:10, 11 인용]” - 정로의 계단, 41.

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무엇을 선언했는가? 딤페전 1:15.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도 찾아 볼 수 없다. 사단은 기도가 소용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속삭일 것이다. ‘그대가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네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 [딤페전 1:15 인용].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로움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산상보훈, 115, 116.

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요일 1:9.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치르신 희생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될 것이며,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듯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 [요일 1:9 인용]라고 하였다.” - 정로의 계단, 4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9

7월 24일(여섯째 날)

1.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자복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가?
2.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복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자복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자기 합리화의 위험성을 설명하라.
5. 겸손한 자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안식일 연금

2026년 8월 1일 안식일



대총회 교육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우리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점점 더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해졌다. 부모, 교육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확고하고 겸손하며 확신에 찬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참된 교육의 과학은 진리이며, 이는 영혼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곳이나 만연한 오류로 인해 지워질 수 없는 진리이다.” -교회증언 6권, 131.

이러한 맥락에서, 대총회 교육부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 학교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왔다. 많은 교육 기관들이 적절한 기반 시설, 현대적인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영적 현실에 맞는 교재가 부족하다. 더욱이 여러 나라에서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원칙을 전파하는 새로운 교육 기관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 연금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1. 기존 선교 학교의 구조 개편;
2.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 그리스도인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학교 설립;
3. 우리 교육팀이 개발한 교육 자료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반 학교와 선교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 및 현지화 계획 추진.

“참된 교육은 선교 훈련이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섬김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치료봉사, 395.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관대함과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연금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청소년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 복음 전파, 그리고 마지막 추수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금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중요한 사업을 강화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학교들이 진정으로 어둠 속에서 비추는 등불이 되어, 임박한 구주의 재림을 위해 신실한 세대를 준비시키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교육부

헌신

기억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5장, 43~48.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717.

1. 자기 자신과의 싸움

7월 26일(첫째 날)

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과 그에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엡 6:12~18.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으나, 모든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 싸움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으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의지를 통제하거나 영혼을 죄짓도록 강제할 힘이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울 용기를 북돋아 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10.

나. 사단은 어디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얻으려 하고 있는가? 잠 4:23.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잠 23:7)하다.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추구하는 것이 헛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스러운 품성을 세우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시련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460.

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눅 14:33; 마 6:24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고 하셨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재물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명예와 세상의 영광은 또 다른 사람들의 숭배하는 대상이다. 이기적인 안락함과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반드시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것이면서 받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정로의 계단, 44.

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신성한 초청을 하시는가? 사 1:18; 렘 29:13; 약 4:7~10.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인 굴종이나 비합리적인 통제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성과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18)하심은 창조주께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자발적이고 이성적으로 드리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으시다. 단순히 강요된 복종은 정신이나 인격의 진정한 발전을 막고, 인간을 단순한 자동인형(自動人形)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의 목적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창조력의 극치(極致)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발전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제시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청하신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43, 44.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주로 나타나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의지해야 한다. 그분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중보자가 나타나셨다. 그분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초청하셨다. 이 초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다. 교만이나 자만심, 혹은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만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39.

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권리로 그분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가? 골 1:14; 히 7:25.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심한 흑암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비애의 잔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비우셨다. 그 두려운 시간 동안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믿음으로 그분께서는 언제나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분 안에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잃었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시대의 소망, 756.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전체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온전한 희생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무한한 사랑으로 고취되고 풍요로워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며 완전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지극히 풍성하였다. 그 큰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의 수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의 경륜이 그 관대함으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충분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565, 566.

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잠 23:26.

“[예수님께서서는] 길 잃은 자들의 자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자 동정 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기가 자기를 알아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기다리듯이 그분께서도 그들에게서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신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시련과 유혹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동정하시는지 깨닫기를 바라신다.” -복음교역자, 210.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곧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씻어 깨끗케 하시고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 한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도 부끄럽고, 쓰는 것도 부끄럽다.” -정로의 계단, 46.

가.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가? 롬 12:1; 살전 5:23.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호소할 때, 진정한 성화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고 활동적인 원칙이다. 성화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습관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잘못된 습관으로 더럽혀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요구한다.” -성화된 생애, 27, 28.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며, 가능한 한 완전한 제물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줄 율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52, 353.

나.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마음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가? 행 2:37, 38.

“그[무리]들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다. 사람들은 죄책감과 고통에 사로잡혔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였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진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설교자의 말에 함께 하였던 능력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권고를 바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기까지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이 권력자들은 경건함을 공언했지만, 세상의 부와 영광을 탐했다. 그들은 빛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사도행적, 43, 44.

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빌 2:12, 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인내심이나 자비가 부족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성향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훼손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의 임재 없이 인생길을 걸으려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물교훈, 161.

나. 어떻게 하면 확고한 믿음과 올바른 원칙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갈 2:20; 마 16:24, 25.

“성화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걸려 있는 중심 기둥이다.” -사도행적, 560.

“그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께 애정을 드릴 수도 없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도록 그대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모든 본성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의 애정은 그분께 집중되고, 그대의 생각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그대의 생애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그대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하신 능력으로 더불어 연합하게 된다. 그대는 그대를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47, 48.

1. 우리 영혼의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 이미 패배한 적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무엇인가?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4.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5.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믿음과 받으심

기억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6장, 49~55.

“그대는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 없으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정로의 계단, 51.

1. 용서와 평화

8월 2일(첫째 날)

가. 용서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인가? 요일 1:9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는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조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평화이다. 하늘의 사유와 영혼의 평화와 사랑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성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이룰 수 없다.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사 55:1) 선물로 주신다. 만일 그대가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정로의 계단, 49.

나. 그대 자신을 하나님과 조화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은 무엇인가? 겔 36:26.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마음에서 죄를 버렸다.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서 그대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49, 50.

가. 예수님께서서는 베데스다의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요 5:1~9.

“베데스다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이미 낫게 되었다고 믿었으며,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걷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걸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는 병이 낫게 되었다.” -정로의 계단, 50.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주시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의심을 품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무력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줄 영적인 삶을 갈망하지만, 헛되이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부르짖는다. 이처럼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그분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시대의 소망, 203.

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대하 7:14; 호 14:4.

“그대는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 없으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대는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대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 즉 사유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대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가 고침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라.” -정로의 계단, 51.

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과거의 죄들은 어떻게 되는가? 롬 3:24, 25; 5:1, 9, 1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구하고, 받을 줄로 믿으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입고,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 정로의 계단, 51.

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롬 8:1.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기 비하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생애를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항상 죄의식과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정결하게 되고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77.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온전히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양심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염려해야 한다. 그대는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받으신 바 되었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32, 33.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은 어떤 변화를 인식해야 하는가? 벰전 1:18, 19; 고전 6:19, 20; 갈 3:26.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벰전 1:18,19 인용]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자녀와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대를 사랑하신다.” - 정로의 계단, 51, 52.

가.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골 2:6

“이제 그대들이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은즉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렸다’고 말하고, 그분께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그대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대들은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골 2:6)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 기간을 거쳐야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개혁되었음을 주님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악을 대적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며, 의지할 것 없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가지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 정로의 계단, 52.

나. 학습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요일 2:1, 2.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버리라. 그 약속은 회개하는 모든 범 죄자를 위한 것이다. 힘과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천사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명하신다.” - 정로의 계단, 52, 53.

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는지 설명하라. 요일 1:7; 갈 5:16, 17, 25.

“지혜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심히 기뻐한다. 이는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더욱 밝게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준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노래는 더 높은 음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합쳐지게 된다.” - 산상보훈, 140.

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사 55:7; 44:22.

“하나님께서서는 유한(有限)한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고(思考)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지극히 부드러운 동정적 생각이시다.” - 정로의 계단, 53.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726.

나. 길을 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태도는 무엇인가? 겔 18:32; 눅 15:18~20.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희망과 모든 빛을 빼앗고 싶어 하지만, 그대들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유혹하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 이 비유는 방황하던 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다. … [눅 15:18~20 인용].

그러나 이 비유는 아무리 부드럽고 감동적일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주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렘 31:3)고 하셨다. 죄인이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동안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심히 사모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갈망은 방황하는 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성령의 부드러운 간청과 권유에 불과한 것이다.” - 정로의 계단, 53, 54.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7

8월 7일(여섯째 날)

1.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2.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가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가?
4.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5. 사단의 악의와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 사이의 대조를 설명하라.

제자되는 증거

기억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7장, 57~65.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경향(傾向)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정로의 계단, 58.

1. 성령의 역사

8월 9일(첫째 날)

가. 그리스도께서는 회심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요 3:5~8.

“사람이 회심의 과정(過程)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하거나, 회심의 모든 경로를 추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러하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다.” -정로의 계단, 57.

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롬 12:9~18; 고후 5:17.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 품성과 습관과 추구하는 것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 사이에는 분명하고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경향(傾向)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영향력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관대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정로의 계단, 57, 58.

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갈 5:22,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갈 5:22, 23 참조]. … 그들이 한때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한때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된다. 교만하고 자기주장이 강했던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허영심 많고 거만했던 자는 신중하고 겸손해진다. 술 취했던 자는 절제하고 방탕했던 자는 정결한 자가 된다. 세상의 헛된 관습과 유행은 버려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단장’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벧전 3:3,4) 단장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58, 59.

“성령의 감화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그분과 대화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까이 계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믿음으로 나타난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112.

나.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인가? 겔 33:14, 15.

“회개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만일 그가 담보물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죄인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유하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난다.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진다. 그리스도께서 지워 주시는 멍에는 쉬운 연고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이전에는 어둠에 가려져 있던 길이 ‘의로움’ 햇빛으로 환하여 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랑스러움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지배하는 원동력이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헌신하지 않은 마음은 사랑을 창작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없애고, 성정(性情)을 고상하게 한다. 영혼에 소중히 간직된 이 사랑은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화(淨化)케 하는 감화를 끼친다.” -정로의 계단, 59.

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한 오류를 받아들이는가? 빌 3:9; 롬 10:3; 약 2:17.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그분의 은혜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의존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거룩해지려 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더럽혀져 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와 정반대이면서도 결코 덜 하지 않게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생각이다.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정로의 계단, 59, 60.

나.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보여주는가? 히 8:10; 10:16.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며, 사랑의 위대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심겨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겠는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고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될 때,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히 10:16)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겠는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 되는 참된 증거이다.” -정로의 계단, 60.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에덴동산에서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과 똑같은 것, 곧 그분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약에서 제시된 위대한 의의 표준은 신약에서도 낮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믿으라, 믿으라’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할 것이다.” -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073.

가. 영생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요일 5:2, 3; 고전 7:19.

“만일 그대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비록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그대의 믿음과 그대의 의지를 그분께 끊임없이 내어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이렇게 하는 한, 그분께서는 그대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 2:20)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마 10:20)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곧 의와 순종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자만할 까닭이 없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행에만 있다.” -정로의 계단, 62, 63.

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엡 2:8, 9; 행 4:12; 롬 9:30~33.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한다. …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무에서 해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오만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요 15:10)한다고 선언하셨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 저 안에 거한다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3,6).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정로의 계단, 60~62.

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고전 15:30, 31.

“그대는 믿음과 그대의 뜻을 그분께 끊임없이 내어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이렇게 하는 한, 그분께서는 그대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정로의 계단, 62, 63.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이루셨으며,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사 64:6)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죄로 더럽혀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 …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실물교훈, 311, 312.

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쁨을 표현했는가? 시 119:97.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과는 전연 다른 종류의 신념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분의 말씀의 진리는 사단과 그의 군대조차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 2:19)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意志)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애정을 집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이 믿음을 통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 -정로의 계단, 6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9

8월 14일(여섯째 날)

1. 회심의 증거를 설명하라.
2.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우리의 영적 삶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위험을 설명하라.
4.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순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5.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 어떤 생각과 소망과 동기가 소중히 여겨지는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기억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3)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8장, 67~75.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해 그대는 마치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 모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依存)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69.

1. 성장의 열쇠

8월 16일(첫째 날)

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 61:3; 벰전 2:2; 엡 4:14, 15; 막 4:26, 27.

“사람의 모든 지혜와 기술로도 천연계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이 생겨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67.

나. 우리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함을 보여주는 실례는 무엇인가? 호 14:5~7; 고전 3:6, 7.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비할 데 없는 선물로 주심으로써, 마치 지구 주위를 둘러싼 공기처럼 실재하는 은혜의 분위기로 온 세상을 감싸셨다.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로 자라날 것이다.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살이 꽃의 아름다움과 균형미를 이루듯이, 우리도 ‘의의태양’이신 예수님께서로 향할 때에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68.

가.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는가? 요 15:4~7.

“많은 사람들이 일의 일부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나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有用性)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에 달려 있다. 날마다, 매시간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일 뿐 아니라 완성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때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 정로의 계단, 69.

“만약 그대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함과 겸허함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그대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자신의 뜻과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몹시 힘든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그대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은 극복되어야 하며 그대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온 생애가 하나의 끊임없는 사랑의 희생이 될 수 있으며, 모든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 되고 모든 말은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줄기와 송이를 통해 순환하여 아래쪽 섬유질을 거쳐 가장 높은 잎사귀에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몸 각 부분에 그 미덕을 보내고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 성경주석[화잇주석] 5권, 1091, 1092.

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골 2:6; 히 10:38.

“그대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들은 스스로 죄를 속죄하거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해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 믿음으로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즉, 주고받음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그대들은 마음과 의지와 섬김을 모두 그분께 드러 그분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것 - 모든 축복의 총만이신 그리스도 - 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여, 그대들의 힘과 의로움, 영원한 조력자로 삼아 순종할 힘을 얻어야 한다.” - 정로의 계단, 69, 70.

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 5:3.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삼으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앞에 내려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매일 실천해야 할 일이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이렇게 날마다 그대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으며, 그대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것이다.” -정로의 계단, 70.

나.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시는가? 마 11:28, 29.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감정의 황홀함은 없을지라도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대의 소망은 그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그대의 연약함을 그분의 힘과 연합하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그의 지혜와 연합하며, 그대의 허약함은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마음을 두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하신 사랑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영혼이 묵상해야 할 주제이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으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그대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 정로의 계단, 70,71.

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사 26:3, 4; 30:15.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그분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생애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자들은 평화와 안정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다. ... 우리의 생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혜로우신 창조주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와 품성의 본을 보여주실 것이다. ...

예수님을 통해 안식에 들어갈 때, 천국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시작한다.” -시대의 소망, 331.

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마음을 예수님께 향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고후 3:18.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개인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본성을 떨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미움을 대신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 -시대의 소망, 391.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들의 주의를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꾀하고 있다. 세상의 쾌락, 삶의 근심과 어려움과 슬픔,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여러분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등. 사단은 이 중 어느 것이든, 혹은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것이다. 그의 계략에 속지 말라. 사단은 진실로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허물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을 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라. 그분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정로의 계단, 71, 72.

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선교 활동을 한 후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행 4:13.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이처럼 초기 제자들은 사랑하는 구주와 같은 형상으로 닮아갔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께 대한 자신들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하고, 따랐다. 그들은 집에서, 식탁에서, 골방에서, 들판에서 그분과 함께 하였다. 그들은 마치 교사를 따르는 제자처럼 그분과 함께 하며 날마다 그분의 입술로부터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의무를 배웠다. 이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약 5:17)이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였다. 그들도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필요했다.” -정로의 계단, 72, 73.

가. 예수님께서서는 적대적인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가? 마 28:20.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임재에 대한 느낌은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개인적인 임재였다. 그들과 함께 걸 으시며,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주셨던 구주 예수님께서 아직 평화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갔으며, 천사들의 구름이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그분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왔다.” -정로의 계단, 73, 74.

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는가? 요 16:23, 24; 14:16~18.

“예수님 승천 후에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는 강력한 논증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더욱 높이 쳐들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는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속에 계’(요 14:17)신 보혜사가 저희에게 임하였다. 그분께서는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말씀 하셨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게 되 셴다.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욱 밀접하 게 되었다. 내재(內在)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비치었으므로 사 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행 4:13) 알았다.” -정로의 계 단, 74, 7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0

8월 21일(여섯째 날)

1. 우리가 식물처럼 자라난다면, 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가?
2. 식물이 자라기 위해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3.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왜 중요한가?
4.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5. 모든 신자의 삶에서 매일 실현되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사업과 생애

기억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참조할 연구 교제: 정로의 계단 9장, 77~83.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며, 곧 하늘의 행복의 본질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정로의 계단, 77.

1. 생명과 빛

8월 23일(첫째 날)

가. 육적인 마음이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요 1:4, 5.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줄기처럼, 생수의 샘에서 쏟아나는 물줄기처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 생명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정로의 계단, 77.

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소중히 간직될 때,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고후 2:14, 15;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달콤한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소생시키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정로의 계단, 77.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우리의 종교가 우리를 냉담하거나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라.” -시대의 소망, 152.

2.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8월 24일(둘째 날)

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필요가 충족되는가? 요 1:12, 13; 고전 1:4, 5; 롬 5:1, 2.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진정으로 회심한 영혼에게서 나오는 확실한 결실이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친구를 만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망이 생겨날 것이며,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만 감추어 둘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내재하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다면 빌립이 주를 만났을 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78.

나. 우리가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권고를 하는가? 히 4:16.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를 기뻐하신다. 자녀들이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빼앗아 가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느낌을 갖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영혼의 소망을 읽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 121.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지게 되는가? 롬 1:14, 15.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빚진 자였는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 사명을 받아들였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 사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학식 있는 자와 학식 없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067.

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중 하나는 무엇인가? 요 1:41, 42.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매력과 내세의 보이지 않는 실재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길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목적이다. 그분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특권을 주셨고, 다음으로 저희 이웃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최대의 기쁨이다. 이처럼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복음 기별과 모든 사랑의 봉사 사업을 하느 천사들에게 맡기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비이기적인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 영적인 향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든 행위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자선적 정신을 더욱 강화시켜, 그를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고후 8:9) 하신 세상의 구주와 더욱 가까이 연합하게 해 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만, 삶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정로의 계단, 78~80.

나. 우리가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갈 6:9, 10; 요 9:4.

“만약 그대들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러 나가서 그분을 위해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대들은 신성한 사물에 대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큰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이며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고 그대의 영혼은 구원의 샘에서 더 깊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반대와 시련에 직면하면 성경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며,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80.

가. 오늘날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 한 가지를 말해 보라. 말 3:8~10.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 가운데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보았다. 현재 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재산의 축적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과 일을 늘려가고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을 거의 잊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곧 헌금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희생은 증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사라진다. ... 우리 백성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있을 뿐이다.” -교회증언 1권, 492.

나.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 미덕은 무엇인가? 벵전 4:8~10; 히 13:2.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어졌던 특권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대함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환대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함께하며, 이 거룩한 존재들은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남기고 떠난다.” -교회증언 6권, 342.

다. 오늘날 신자들은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하는가? 고후 10:16.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 아무도 단순한 세상적인 이익만을 위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진리에 확고히 뿌리내린 가정들이 한 지역에 들어가 한두 가정씩 선교사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위해 수고해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배포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그들의 이웃과 친해져서 그들을 이 집회에 초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선한 행실로 그들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 -교회증언, 8권, 245.

“하나님께서서는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대로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국내외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상은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적, 111.

5. 충성스러운 대표자들

8월 27일(다섯째 날)

가. 복음을 맡은 모든 사람, 특히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고전 4:1, 2; 계 2:10.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죄인들에게 위협을 경고하시며 안전한 장소를 지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온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희생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그들은 임박한 멸망에서 남녀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범죄의 확실한 결과를 충실히 경고하고 교회의 이익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복음교역자, 15.

나. 다니엘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가? 단 1:8, 15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 신실한 히브리인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은혜와 일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어른들과 젊은이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한 예의를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있었으며, 하늘을 우러러 그의 말에나 행실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길을 추구하고자 했다. 다니엘은 왕의 식탁에서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화를 내거나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반항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며, 간절한 기도 끝에 그들의 결심이 굳어졌다. 진정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니엘은 그들을 책임진 관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단순한 식단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년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원칙이 위태로워졌음을 느꼈으며,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6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01

8월 28일(여섯째 날)

1.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셔야만 했는가?
2. 믿는 자들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3.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4.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라.
5. 다니엘의 신실함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가?

첫째 안식일 연금

2026년 9월 5일 안식일



필리핀 성경 선교사 훈련 학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되새기며,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성경 선교사 훈련 학교는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관이다. 1984년 2월 설립 이후, 이 학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는 믿음의 등대 역할을 해왔다.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2년제 선교사 훈련 과정을 수료한 많은 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필리핀의 인구가 밀집된 섬 전역에서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는 지도자와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케손주 짜옹 카바탕에 위치한 성경 선교사 훈련 학교는 필리핀과 태평양 전 지역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탄탄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 시설은 학생들이 머물면서 영어를 배우고, 국내외에서 절실히 필요한 선교사, 문서 전도사, 의료 종사자 및 행정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왔다. 또한 훈련 세미나, 청소년 대회, 그리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필리핀 전역에서 개혁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의 확장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바로 이 곳에서 대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이다. 전도와 영적 부흥에 대한 비전이 중심이 되는 이 신자들의 모임을 주최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오늘 여러분의 관대한 첫째 안식일학교 연금은 절실히 필요한 이 기관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헌금하실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대들의 연금이 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그 사명을 강화하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준비된 일꾼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연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자.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대들이 베푸는 대로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필리핀의 형제자매들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억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다”(시 107:43).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10장, 85~91.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교육, 14.

1.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

8월 30일(첫째 날)

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시는가? 시 19:1~6; 잠 2:1~5.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영광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귀를 기울이는 자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푸른 들, 울창한 나무들, 새싹과 꽃들,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줄줄 흐르는 시냇물,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시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을 알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 정로의 계단, 85.

나.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시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마 13:3, 34.

“우리 구주께서는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사물들과 연결시키셨다. 나무와 새와 골짜기의 꽃들과 산과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건과 주변 환경까지 모두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 이는 사람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분의 교훈을 자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서 지으신 만물을 감사히 여기며, 그분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신 소박하고 은근한 미(美)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 정로의 계단, 85.

가. 꽃, 새, 별과 같은 천연계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롬 1:20; 행 14:17.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창조주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참된 과학은 물질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숨씨를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학은 그 연구를 통해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만을 제시할 뿐이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천연계라는 책과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칙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부조와 선지자, 599.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주 공간을 궤적 없이 유영하며 오랜 세월 정해진 궤도를 운행하는 별들로부터 가장 미세한 원자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의 만물은 조물주의 뜻을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유지하신다.” -정로의 계단, 85, 86.

나. 훼손되지 않은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묵상할 때, 약속된 새 땅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고전 2:9; 계 21:1.

“구원받은 자의 본향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라. 그리고 그곳은 그대들의 가장 뛰어난 상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울 것임을 기억하라.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희미한 빛줄기만을 볼 뿐이다.” -정로의 계단, 86, 87.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분의 백성들은 현재의 시련을 넘어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의 승리를 바라 볼 수 있게 허락받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투쟁이 끝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다.” -선지자와 왕, 722.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히 11:14~16 참조).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 무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영원히 흐르는 강들이 있고, 그 가에는 흔들리는 나무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길에 그 그림자를 드리운다. 넓게 펼쳐진 평야는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자랑한다. 그 평화로운 평원에서, 그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5.

3.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

9월 1일(셋째 날)

가. 낙심과 유혹의 시기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선지자들에게서 어떤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약 5:17; 롬 8:28; 요일 5:14.

“우리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또는 날마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열려만 있다면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

저[부조와 선지자]들도 ‘우리과 성정이 같은 사람’(약 5:17)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낙담 가운데서 어떻게 악전고투했는지,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으나 다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지를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용기를 얻는다.” -정로의 계단, 87, 88.

나. 하나님께서 천연계의 만물을 돌보시는데,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마련해 주시겠는가? 시 107:43; 145:15, 16.

천연계와 계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다. 천연계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놀랍도록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기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햇살과 비, 언덕과 바다와 평야는 모두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정로의 계단, 9.

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게 해야 하는가? 마 6:30~34.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처리하고 성공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짐을 지고 그분의 도움 없이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하고 위협과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산상보훈, 100, 101.

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신 곳은 어디인가? 요 5:39; 사 34:16.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성경)에서 그분의 품성과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과 구속의 위대한 사업들에 대해 보다 분명한 계시를 보게 된다.” - 정로의 계단, 87.

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 6:53, 63; 골 3:1, 2.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이며, 그것은 영원무궁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학문이자 노래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은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묵상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사명을 묵상해야 한다.” - 정로의 계단, 88, 89.

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마 4:4; 딤후 2:15.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거기서 유익한 교훈을 얻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의 가장 귀중한 가르침은 이따금 또는 단편적인 연구로서는 얻을 수 없다. 성경이 제시하는 위대한 진리 체계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사람에게는 깨우쳐지지 않는다. 진리의 많은 보화들은 표면 아래 깊이 숨겨져 있으며, 부지런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위대한 전체를 구성하는 진리들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사 28:10) 찾아내어 모아야 한다.

이렇게 찾아내고 함께 모으면, 그것들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충하는 것이고, 모든 예언은 다른 예언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진리는 다른 진리를 발전시킨 것이다. 유대 율법의 유형들은 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원칙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실은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완전한 구성이나 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그 저자를 증거한다. 그러한 구성은 무한하신 분의 생각 외에는 어떤 마음도 구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 교육, 123, 124.

가.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위안과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렘 15:16.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 지성을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성경의 광범위하고 고상한 진리처럼 생각을 고양시키고 정신적 능력을 활기차게 하는 책은 없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오늘날 보기 드문 관대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과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90.

“성경을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지성에 도달한 것처럼 명확한 이해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성격 1권, 95.

나. 성경은 어떻게 연구해야 하며, 성경 연구에 앞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시 119:9, 11, 16.

“하나님의 진리는 금과 같아서 항상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지한 사고와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복음교역자, 76.

“광부(鑛夫)가 땅속 깊이 감추인 귀금속의 광맥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끈기 있게 탐구하는 사람은 부주의한 구도자의 눈에는 감추어진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 깊이 묵상한 영감의 말씀은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을 것이다.

성경은 결코 기도가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의 깨우침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9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51

9월 4일(여섯째 날)

1. 우리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2.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3.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4.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라.
5. 성경과 관련하여 예레미야가 겪었던 어떤 경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가?

기도의 특권

기억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11장, 93~104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에게로 올려보내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93.

1. 위대한 간구자

9월 6일(첫째 날)

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셨는가? 눅 5:16; 막 6:46.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로 그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에 저항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 우리 인류의 만행님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사시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필요를 잘 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는 사자들이 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아시나, 그분을 섬기려고 전적으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의 모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으로, 열렬하고 끈기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사람들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시켜 주신다.” -복음교역자, 511.

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모본이 되는가? 막 1:35; 눅 6:12.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에 자주 기도하셨다.” -정로의 계단, 93.

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눅 11:1~4.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보증이 된다. ...

그분께서는 연약함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히4:15)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품성이 악을 멀리하셨다. 그분께서는 죄악 된 세상에서 영혼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다. 그분의 인성은 기도를 필수이자 특권으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찾으셨다. 그리고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얼마나 더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겠는가?”
-정로의 계단, 93, 94.

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 50:4; 히 2:10; 5:7~9.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그분께서는 특별히 기도하시던 장소들이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산속의 고요한 가운데 아버지와 교통하시기를 좋아하셨다. 그분의 거룩하고 인간적인 영혼은 그날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활력과 상쾌함으로 의무와 시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 아버지께 새로운 힘을 구하는 간구자, 밤마다 탄원자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교회증언 2권, 201, 202.

“나는 젊은이들 중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명도 없음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섬기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걸린 마법이 풀리지 않는 한 그들은 범죄자의 몫이 그들의 것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극기와 희생을 하는 대신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편안한 길을 찾아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힘을 간절히 구하며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진지하고 열성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것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여긴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 심령의 요구를 토로하기 위하여 종종 홀로 산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힘없는 죄인인 사람은 것처럼 많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증언 1권, 504, 505.

가.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마 6:6; 7:7~11.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비천한 자녀의 진지한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를 매우 꺼려 한다.” -정로의 계단, 94.

“하나님께서서는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그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라.” -정로의 계단, 96.

나. 무엇이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방해하는가? 시 66:18; 잠 28:13.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있고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축복을 묵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관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정로의 계단, 93.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은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도 그렇듯 적게 하고, 믿음도 너무나 부족하니, 이것을 볼 때에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분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땅의 자녀들은 그분의 성령의 빛과 그분의 임재의 교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악한 자의 어둠에 갇히게 된다. 원수의 속삭이는 유혹은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로의 계단, 94.

“만일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거나, 알고 지은 죄를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로의 계단, 95.

가. 약하고 효과 없는 기도와 대조되는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히 11:6; 막 11:24.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구한 그 순간에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근시안적이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들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 곧 우리가 거룩한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것을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가장 필요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로의 계단, 96.

나. 기도가 주님께 가납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마 6:12; 막 11:25, 26.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97.

다. 엘리야의 비를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왕상 18:41~45.

“좋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섯 번이나 지켜보러 갔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도 없고, 비올 조짐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점점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구주만을 자신의 유일한 힘과 의로 굳게 붙잡았으며, 응답이 이르러 왔다.” -성경주석[화잇주석] 2권, 1035.

가. 사도들은 기도에 관해 어떤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는가? 벤티전 4:7; 빌 4:6.

“기도에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과 그대들의 영혼 사이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기도를 늘 드려지는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찾으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기도에 참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98.

나.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눅 11:10, 13; 요 14:13, 14.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죄인의 추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인정하신다.” -시대의 소망, 667.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부적절한 때나 장소는 없다.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리의 인파 속에서도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때에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정로의 계단, 99.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41

9월 11일(여섯째 날)

1.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모범의 어떤 예가 있는가?
2. 매일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어떤 예언이 있는가?
3.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4.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심을 극복하는 길

기억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 1:6)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12장, 105~11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정로의 계단, 105.

1. 의심이란 무엇인가?

9월 13일(첫째 날)

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릴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약 1:5~7

“그분[주님]의 약속은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7)고 기록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384.

나. 주님께서서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시 119:105; 히 11:1, 3, 6.

“우리의 믿음은 실증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의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믿음을 세울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105.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터가 될 견고한 기초를 주셨다.” -각 시대의 대쟁투, 526, 527.

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신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신 29:29; 욥 38:4~11.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성하신 저자의 품성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이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 중생(重生), 부활,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주제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신비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정로의 계단, 106.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가 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무게에 따라 성경 구절들을 서로 신중하게 대조하여 결정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유대인들이 편견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짓는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다면, 그들은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겸손한 갈릴리 사람의 생애와 봉사에서 성취된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시대의 소망, 458, 459.

나.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벰후 3:16.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일 성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尊嚴)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주제들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로의 계단, 107.

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위험은 무엇인가? 히 3:12; 딤후 4:3, 4.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하시리 만큼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계 14:9~11 참조)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두려운 심판은 모든 사람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배우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선언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딤후 4:3)리라. 그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죄악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4, 595.

나. 마지막 날에 두 부류의 태도에 대해 어떤 예언이 있는가? 단 12:10; 계 22:11.

“하나님께서 모든 교리의 기준과 모든 개혁의 기초로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상에 두실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 과학의 추론, 교단의 신조나 종교 회의의 결정은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어떤 종교적 신앙의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5.

“의의 태양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빛이 언제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드러날 진리가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기도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비취 나오는 고귀한 빛줄기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소유가 되기 위해 모아야 할 보석들이 아직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빛은 단순히 교회의 힘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34.

4. 불신의 진정한 이유

9월 16일(넷째 날)

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고후 13:5; 딤후 3:9~11.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셨지만, 불신에 대한 모든 구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의심할 구실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찾을 것이다. 모든 반론이 해소되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빛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27.

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약 4:6, 10; 벰전 5:6, 7.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졌고, 내 심령의 주림이 충족되었다. 이제 성경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묻는가?-그분께서는 내게 거룩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느냐고 묻는가?-이는 성경이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참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안에서 증거할 수 있다. 우리는 교묘하게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정로의 계단, 112.

다. 사도 바울은 현재와 미래에 믿는 자의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고전 13:12.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이해하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수치와 영광, 삶과 죽음, 공의와 자비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렵듯이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끊임없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에 펼쳐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1.

“믿음으로 우리는 내세를 바라볼 수 있으며 지성의 성장, 인간의 능력이 신성과 연합하고 영혼의 모든 능력이 빛의 근원과 직접 접촉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던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해명을 얻게 될 것임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혼란과 깨어진 목적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고전 13:12 인용].” -정로의 계단, 112, 113.

5.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9월 17일(다섯째 날)

가. 주님께서서는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펼쳐 보이고 계시는가? 계 10:2, 6, 7.

“봉인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 중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의 일부였다. … (단 12:4) 그 책이 펴놓였을 때 ‘지체하지아니하리’(계 10:6)라고 선포되어 있다. 이제 다니엘서는 봉인이 풀렸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마지막 날에 설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5.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봉인된 책으로 여기고 그 신비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의 영광만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밧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된 신비들은 이것들보다도 덜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 …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해야 한다. …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으며, 그분께서는 이 신비들이 모든 사람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를 바라셨다. 이 책에는 이미 지나간 장면들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관심사에 관한 일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예언 중 일부는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왕자 사이의 마지막 큰 싸움이 일어날 세상의 종말까지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것들도 있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54.

나. 신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딤후 2:15; 요 7:1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31

9월 18일(여섯째 날)

1.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2. 성경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3.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진정으로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항상 발견하게 되는가?
5. 진리를 이해하는 데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기뻐함

기억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참조할 연구 교재: 정로의 계단 13장, 115~126.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로의 계단, 124.

1. 빛의 전달자들

9월 20일(첫째 날)

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마 5:13~16.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비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한다.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봉사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로의 계단, 115.

나.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요 17:18, 23; 고후 5:20.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세상에 편지를 보내신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통해 그대가 사는 가정과 마을과 거리로 편지를 보내신다. 그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예수님의 진정한 대표자라면, 그대를 통해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 -정로의 계단, 115.

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성취할 수 있는가? 고후 3:2~5.

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요 3:16; 롬 5:6~10.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어머니가 평생을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자녀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실거야.’라고 말하고 있다.” -정로의 계단, 118, 119.

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롬 8:32.

“그대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도 하나님께 그대들의 사정을 맡기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모든 영혼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그분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실물교훈, 174.

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요일 4:9~12.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서의 그들의 적합성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사도는 ‘우리가 말... 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날 때이다. 믿는 자의 영혼을 감싸는 이러한 사랑의 분위기가 그를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하시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적, 551.

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그분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사 53:10, 7.

“그리스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기희생의 생애였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친구들의 친절로서 마련해준 곳 외에는 거처하실 집이 없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시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 생애 하시며 일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하셨지만, 그분께서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들 사이를 오가셨다.” -복음교역자, 42, 43.

“그분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분께서는 그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다. 그분 앞에는 곧 있을 고난의 현장인 겿세마네가 펼쳐져 있었다. 또한 수 세기 동안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끌려갔던 양문도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 문은 그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사 53:7)처럼 끌려가실 때 그분을 위해 열리게 될 것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갈바리도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곧 걸어가실 길 위에는 그분의 영혼이 속죄 제물로 드리질 때 질은 어둠의 공포가 드리워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이러한 장면들을 명상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 자신에게 있을 초인적인 고통에 대한 어떤 예감도 그분의 무아(無我)의 정신을 어둡게 할 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우셨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들의 무지와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8.

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할 용기를 주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 53:11; 히 12:2.

“구주께서 흑암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치러진 대가에 만족히 여기시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위대한 희생의 열매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52.

“예수님께서 눈물은 흘리셨지만, 미소 지으신 적은 결코 없으셨다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 주께서는 참으로 슬픔의 사람이셨고,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고통에 마음을 여신 까닭이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는 극기의 생애였고 비록 고통과 근심으로 어두워졌을지라도 그분의 영혼은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으셨고 언제나 평화롭고 침착한 표정을 띠셨다. 그분의 마음은 생명샘이셨고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안식과 평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셨다.” -정로의 계단, 120.

가. 신자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이 주어지는가? 엡 6:11~18.

“누구나 다 시련이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슬픔과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웃에게 털어놓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아뢰어라. 의심이나 낙담의 말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 희망과 격려의 말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명량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다.” -정로의 계단, 119, 120.

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시련 속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 14:28~31; 약 1:2.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유혹에 심하게 시달리며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른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힘든 투쟁중에 있는 자들을 낙담케 하지 말라. 그들에게 저희의 길을 전진하게 할 용기 있고 희망찬 말로 그들을 격려하여 주라.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들을 통해 비취게 될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롬 14:7)다. 우리가 무의식중에 끼친 감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낙담하여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는 온화함과 명량함이 결여되고 엄하시고 가혹하셔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으셨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암울한 견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적 경험 전체를 물들인다.” -정로의 계단, 120.

다. 시련 속에서도 의인의 길은 어떻게 밝은가? 잠 4:18; 빌 4:4.

“길이 험하고 오르막은 가파르고, 좌우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정 중에 수고를 견디어야 할 수도 있다. 지치고 쉬고 싶을 때라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지도 모른다. 기력이 쇠하여 쓰러질 때에도 싸워야 할지 모른다.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면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안식처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 험한 길을 걸어갔고, 우리의 발걸음을 위해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파른 길 곳곳에는 지친 자들을 상쾌하게 해 줄 기쁨의 샘들이 있다.” -산상보훈, 140.

5. 우리의 보상과 기쁨

9월 24일(다섯째 날)

가. 예수님의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과 하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게 하는가?
사 41:10; 눅 12:32; 벰전 4:13.

“그분의 백성이 근심에 짓눌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분께서는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시지만, 결코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정로의 계단, 122, 123.

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에 대한 다른 놀라운 약속들을 몇 가지 더 나열해 보라. 요 14:1~3, 27; 15:11; 16:20.

“우리는 장차 오는 투쟁에서 새로운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장래의 일도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신 33:25)라고 말할 수 있다.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천국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할 것이며,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는 축복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들의 귀에 울려 퍼질 것이다. …

그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유업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묻는다. …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영혼은 모든 고귀한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므로 지극히 귀한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구속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은 거룩한 승리의 노래로 표현된다.” -정로의 계단, 125, 12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20

9월 25일(여섯째 날)

1.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
2.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3. 고난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 확신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4.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5.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첫째 안식일 연금



7월 4일 안식일

인도 첸나이 교회 확장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연금

12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원하자!(4페이지 참조)



8월 1일 안식일

대총회 교육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우리는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교육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25페이지 참조).



9월 5일 안식일

필리핀 성경 선교사 훈련 학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나가자(51페이지 참조).